



(제이홉 인스타)

BTS 제이홉 '솔로 월드투어'

다음달 서울 KSPO돔 시작...미국 등 15개 도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사진)이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첫 솔로 월드투어 '호프 온 더 스테이지'(HOPE ON THE STAGE)를 시작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10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포스터를 게재하며 월드투어 개최 소식을 알렸다.

'호프 온 더 스테이지'는 제이홉이 데뷔 이래 처음으로 여는 솔로 월드투어다.

빅히트뮤직은 "이번 공연명은 '무대 위의 제이홉'을 뜻하면서도 그와 관객이 바라는 희망, 소원, 꿈 등이 스테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이홉은 자기 뿌리를 소재로 한 스페셜 앨범 '호프 온 더 스트리트 VOL.1'(HOPE ON THE STREET VOL.1)에 수록된 노래들을 라이브로 처음 들려줄 예정이다. 그는 서울에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카고, 멕시코 멕시코시티, 필리핀 마닐라, 일본 사이타마·오사카, 싱가포르, 태국 방콕, 마카오, 대만 타이베이 등 총 15개 도시에서 31회에 걸쳐 팬들을 만난다.

서울 공연은 3회 모두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병행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대형 산불 상황을 고려해 북미 공연 관련 내용은 추후 공지된다. /연합뉴스

90대 이순재, 첫 연기대상

KBS 역대 최고령...“시청자들에 평생 신세 많이 졌다”

배우 이순재가 KBS 연기대상을 거머쥐었다. KBS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다.

이순재는 11일 오후 9시 20분부터 12일 새벽까지 방영된 '2024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이순재는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개의 목소리를 듣게 된 원로 배우를 연기했다. 드라마는 자체 최고 시청률 4.6%를 기록했다.

이순재는 무대에 올라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연재는 기회가 한 번 오겠지" 하면서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아름다운 상, 귀한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순재는 이날 수상 소감에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의 학생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기전대 석좌 교수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믿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결과가 온 걸로 알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께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1934년생인 이순재는 현재 활동 중인 최고령 배우 중 한 명이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극 무대에

도 오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공연 중이던 연극을 전면 취소하고 3개월간 휴식을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순재는 후배 배우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지만, 대상 수상자로 호명된 후 후배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됐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생중계를 취소하고 지난 11일 오후 9시 20분부터 녹화 방송됐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 ▲ 대상 이순재 ▲ 최우수상 김정현, 지현우, 박지영, 임수향 ▲ 우수상 연우, 한지현, 박지훈, 금새록, 신현준, 함은정, 박하나, 백성현, 오창석 ▲ 베스트커플상 지현우-임수향, 김정현-금새록, 백성현-함은정, 박지영-신현준-김혜은, 이순재-아리-연우 ▲ 인기상 김명수, 금새록 ▲ 조연상 윤유선, 김용진, 최태준 ▲ 작가상 '다리미 패밀리' 서숙향 작가 ▲ 드라마 스페셜상 오예주, 남다름 ▲ 신인상 홍예지, 한수아, 서범준, 박상남 ▲ 청소년 연기상 문성현, 이설아

/연합뉴스



'2024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 수상 배우 이순재

'파묘' 애플어워즈 11개 부문 후보 올라

남우 주연 최민식·여우 주연 김고은 등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영화 '파묘(사진)'가 올해 아시아필름어워즈에서 11개 부문 후보에 들었다.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18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파묘'는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남우주연상(최민식), 여우주연상(김고은), 신인배우상(이도현) 등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홍콩 액션 영화 '구룡성채: 무법지대' (9개 부문)를 제치고 초창작 가운데 가장 많은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됐다.

지난해 2월 개봉한 '파묘'는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옮기게 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누적 관객 1191만여 명을 기록한 흥행작이다.

임지연은 오승욱 감독의 '리볼버'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선정됐다.

우민호 감독의 '하얼빈'을 찍은 흥행표 촬영감독은 촬영



영상 후보에 올랐다. 아시아필름어워즈는 부산·도쿄·홍콩 세 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영화 발전을 위해 설립한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 주최로 매년 열리는 시상식이다. 올해 심사위원으로는 홍콩 배우 흥진바오(홍금보)가

위촉됐다. 심사위원 및 200여 명의 투표위원과 함께 수상자를 가린다. 시상식은 오는 3월 16일 홍콩 웨스트 구룡문화지구의 공연 예술 스튜디오 시취 센터(Xiqu Centre)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